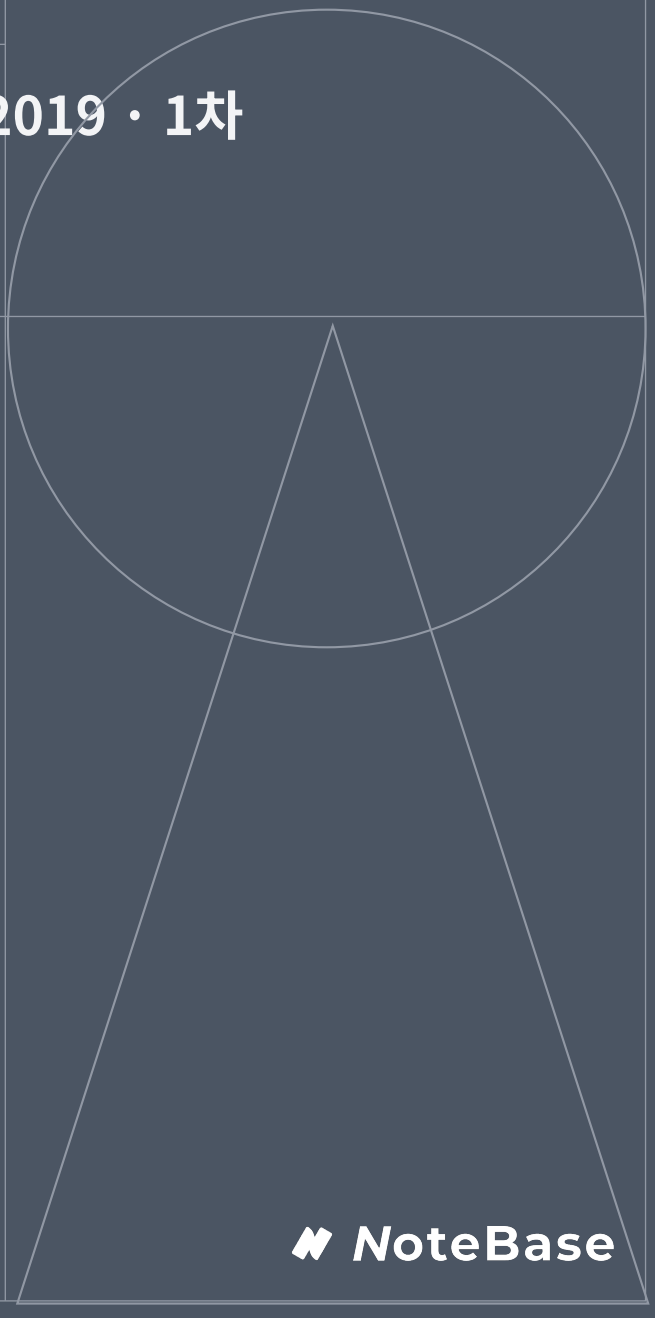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1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1차

문 1. 다음 중 국립국어원이 권고한 순화(우리말 다듬기) 대상어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① 혹성
② 뗑깡
③ 우동
④ 둔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순화의 대상이 된 말과 그 말을 대신하도록 제시된 다듬은 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화 대상어는 어렵거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외국어·일본어 투 표현 등을 쉽고 알맞은 우리말로 다듬기 전의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혹성·뗑깡·우동이 순화 대상어이고, 둔치는 고수부지를 다듬은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혹성'은 일본어 투 용어로 보아 '행성'으로 다듬은 순화 대상어이다. 따라서 순화 대상어로 볼 수 없다는 선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 '뗑깡'은 일본어에서 온 속된 생활 표현으로, '생떼'로 다듬은 순화 대상어이다. 올바른 표현은 '생떼'이다.
③ X — '우동'은 일본어에서 온 음식 이름으로, '가락국수'로 다듬은 순화 대상어이다. 올바른 다듬은 말은 '가락국수'이다.
④ O — '둔치'는 순화 대상어가 아니라 일본어 투 한자어인 '고수부지'를 대신하도록 제시된 다듬은 말이다. 따라서 순화 대상어로 가장 볼 수 없는 말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둔치'를 낯선 고유어라는 이유만으로 순화 대상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말의 익숙함이 아니라 '다듬기 전 표현'과 '다듬은 뒤 표현'의 방향을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를 '대상어 → 다듬은 말'의 짝으로 바꾸어 본다. 다른 표현의 대체어로 제시된 말이면 순화 대상어가 아니라 다듬은 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혹성→행성, 뗑깡→생떼, 우동→가락국수, 고수부지→둔치이다.

NoteBase

문 2. 문장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중의문(重義文)'이라 한다. 모호성의 이유 즉,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언어 형식에 의한 내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언어 외적인 문제인가에 따라서 중의성을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한 중의성은 다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영향권 중의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어휘적 중의성은 문장 속에 사용된 어휘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의성이며,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중의성이다. 그리고 영향권 중의성은 어떤 단어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역(scope)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중의성으로 영향권 중의성 또는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문장 표현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 외적 요소, 즉 발화 장면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의성을 화용적 중의성이라고 한다.

① 학생이 모두 오지 않았다.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③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④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의 중의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영향권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향권 중의성은 부정 표현이나 수량 표현 등이 의미에 미치는 작용역을 달리 해석할 때 생긴다. 구조적 중의성은 수식 관계, 접속 구조, 비교 대상 등 문장 성분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둘 이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생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모두'와 부정 표현 '오지 않았다'의 작용역에 따라 '학생 전원이 오지 않았다'와 '학생 전원이 온 것은 아니다'로 해석된다. 나머지 선지와 달리 영향권 중의성에 해당한다. 뜻을 분명히 하면 전자는 '학생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후자는 '학생이 모두 온 것은 아니다'가 된다.
② X — '가정에 충실한'이 '주부'만 수식하는지 '주부와 남편' 모두를 수식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구조적 중의성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이 아니라 나머지와 같은 구조적 중의성이며, 각각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그 남편' 또는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가정에 충실한 남편'으로 고치면 뜻이 분명해진다.
③ X — 비교의 기준이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는 정도'인지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정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구조적 중의성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이 아니며, 각각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또는 '아내는 남편을 좋아하는 것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로 고칠 수 있다.
④ X —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국어 교사이면서 교장인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 접속 구조에서 중의성이 생긴다. 따라서 구조적 중의성이며, 두 사람이라면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두 분을 찾아뵈었다', 한 사람이라면 '나는 국어 선생님이기도 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다'로 고치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두 해석도 문장 구조가 달라 보이지만 핵심은 '모두'와 부정의 작용역이다. 반면 ②~④는 수식·비교·접속 관계를 어떻게 묶는지가 달라지는 구조적 중의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정어와 '모두·어떤·모든' 같은 수량 표현의 영향 범위가 문제이면 영향권 중의성으로 판단한다. 수식어가 어디에 붙는지, 무엇과 비교하는지, 접속된 말을 한 덩어리로 보는지가 문제이면 구조적 중의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두＋부정'은 작용역, '수식·비교·접속의 묶임'은 구조이다.

NoteBase

문 3.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에 가장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A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고, B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도 맛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② 화성에서 식물을 발견할 확률은 1/2이다. 동물을 발견할 확률도 1/2이다. 따라서 화성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체를 발견할 확률은 1/2 + 1/2 = 1이다.

③ 박인비 선수가 한국 골프 선수로는 네 번째로 US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 여자는 모두 골프에 소질이 있다.

④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부 사례만으로 전체를 단정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확률의 덧셈 원리를 잘못 적용한 오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대표성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사례만으로 집단 전체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오류이다. 키워드는 '일부 관찰 → 전체 단정'이다.
확률 덧셈의 오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각 사건의 확률을 그대로 더하는 오류이다. 두 사건 A와 B의 합사건 확률은 일반적으로 $P(A \cup B) = P(A) + P(B) - P(A \cap B)$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 지역과 B 지역의 사과만 맛보았다는 제한된 사례로 올해의 모든 사과가 맛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결론의 '올해는 맛있는 사과를 맛볼 수 없다'가 지나치며, 올바르게는 A·B 지역 외의 사과까지 충분히 조사한 뒤에야 올해 사과 전체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③, ④와 같은 유형이어서 정답이 아니다.

② O
식물을 발견하는 사건과 동물을 발견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두 확률을 단순히 더할 수 없다. '1/2 + 1/2 = 1'이라는 부분이 잘못이며, 올바르게는 두 사건의 교집합 확률을 빼서 계산해야 한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라 확률의 덧셈 원리를 잘못 적용한 오류이므로 다른 유형에 해당한다.

③ X
박인비 선수 한 사람의 우승 사례에서 한국 여성 전체의 골프 소질을 단정하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한국 여자는 모두 골프에 소질이 있다'가 지나친 결론이며, 올바르게는 한 선수의 성과만으로 한국 여성 전체의 소질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①, ④와 같은 유형이어서 정답이 아니다.

④ X
자신이 본 일부 이등병의 사례를 근거로 이등병 전체가 항상 말썽을 일으킨다고 단정하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이등병들이 말썽이다'라는 일반화가 지나치며, 올바르게는 관찰한 몇몇 사례만으로 모든 이등병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①, ③과 같은 유형이어서 정답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②도 결론이 잘못된 논증이라는 점만 보고 ①·③·④와 같은 오류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①·③·④의 공통점은 적은 사례에서 전체를 단정한 것이고, ②의 문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두 사건의 확률을 단순히 더한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제와 결론 사이의 비약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본다. '몇 사례를 보고 모두·항상·전부라고 결론' 내리면 성급한 일반화이고, 확률을 더하거나 곱하는 계산 규칙을 잘못 적용하면 확률 연산의 오류이다.

암기 포인트

일부에서 전체로 뛰면 성급한 일반화, 겹칠 수 있는 확률을 그냥 더하면 덧셈 오류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못 고친 것은?

제목: 위탁 교육 운영 계약 및 체결 의뢰
우리청 직원들의 인명구조 능력과 초동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져 '2019년 상반기 각 지방해양경찰청 내 인명구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 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우리청 → 우리 청
② 기여하고져 → 기여하고자
③ 계획인 바 → 계획인바
④ 밝힌 바와 → 밝힌바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의 형태와, 연결 어미 '-ㄴ바'와 의존 명사 '바'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자'는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기여하고자'로 쓴다.
연결 어미 '-ㄴ바'는 앞말의 내용이 뒤말의 배경이나 근거가 될 때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 '바'는 '일·사실·내용'의 뜻을 나타내며 앞말과 띄어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리'가 뒤의 명사 '청'을 꾸미므로 두 단어를 띄어 '우리 청'으로 고친 것이 맞다.
② O —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는 '-고자'이다. 따라서 '기여하고져'의 잘못된 '-고져'를 '-고자'로 고친 것이 맞다.
③ O — '계획인바'의 '-ㄴ바'는 교육 추진 계획을 계약 체결 의뢰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계획인 바'가 아니라 '계획인바'로 붙여 쓰는 것이 맞다.
④ X — '밝힌 바와 같이'의 '바'는 '밝힌 내용'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밝힌바와'가 아니라 원래 표현인 '밝힌 바와'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에는 모두 '바'가 들어가지만 문법적 기능이 다르다. ③의 '-ㄴ바'는 뒤 문장의 배경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④의 '바'는 '내용'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두 경우를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판단하면 ④의 잘못된 교정을 놓치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를 ‘일·사실·내용’으로 바꾸어도 뜻이 통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앞 절이 뒤 절의 배경이나 근거가 되어 ‘-므로’, ‘-는데’와 비슷한 구실을 하면 연결 어미 ‘-ㄴ바’이므로 붙여 쓴다.

암기 포인트

내용을 뜻하는 ‘바’는 띄고, 배경·근거를 잇는 ‘-ㄴ바’는 붙인다.

NoteBase

문 5. 다음 외래어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팸플릿(pamphlet)
㉡ 카달로그(catalog)
㉢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 비젼(vision)
㉤ 바리케이드(barricade)
㉥ 시뮬레이션(simulation)
㉦ 리더쉽(leadership)
㉧ 앰뷸란스(ambulance)
㉨ 쉬림프(shrimp)
㉩ 뱃지(badge)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외래어를 원어의 철자나 일상적 발음대로 임의로 적지 않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준 표기로 적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옳은 표기는 ㉠ 팸플릿, ㉢ 프레젠테이션, ㉤ 바리케이드, ㉥ 시뮬레이션의 4개이다.
옳지 않은 표기는 ㉡ 카달로그→카탈로그, ㉣ 비젼→비전, ㉦ 리더쉽→리더십, ㉧ 앰뷸란스→앰뷸런스, ㉨ 쉬림프→슈림프, ㉩ 뱃지→배지의 6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지 않은 표기는 2개가 아니라 ㉡, ㉣, ㉦, ㉧, ㉨, ㉩의 6개이다. 올바르게는 '6개'이다.
② X — 옳지 않은 표기를 모두 고치면 카탈로그, 비전, 리더십, 앰뷸런스, 슈림프, 배지가 되므로 4개가 아니라 6개이다. 올바르게는 '6개'이다.
③ O — 옳지 않은 표기는 카달로그, 비젼, 리더쉽, 앰뷸란스, 쉬림프, 뱃지로 모두 6개이다.
④ X — 팸플릿, 프레젠테이션, 바리케이드, 시뮬레이션은 이미 옳은 표기이므로 옳지 않은 표기는 8개가 아니라 6개이다. 올바르게는 '6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리더쉽’, ‘뱃지’처럼 실제로 자주 보이는 표기를 표준 표기로 착각하기 쉽고, ‘쉬림프’도 익숙한 발음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각 항목을 따로 O/X 판정한 뒤 틀린 항목만 세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외래어를 표준형으로 고쳐 써 본 뒤 원래 표기와 달라지는 항목만 센다. 특히 카달로그/카탈로그, 비젼/비전, 리더쉽/리더십, 앰뷸란스/앰뷸런스, 쉬림프/슈림프, 뱃지/배지의 대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카탈로그·비전·리더십·앰뷸런스·슈림프·배지가 표준 표기이며, 틀린 것은 6개이다.

NoteBase

문 6. 다음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깐깐오월이라, 음력 5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사는 일이 힘들었지.

② 그 판사의 판결은 언제나 사개가 맞아 원고와 피고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③ 그는 엉너리를 치며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

④ 그는 오랫동안 만나 온 사람이지만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관용 표현의 사전적 의미가 문장 속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깐깐오월: 음력 5월은 해가 길어 하루가 더디 가는 듯 지루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개가 맞다: 말이나 사리의 앞뒤 관계가 빈틈없이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엉너리를 치다: 능청스러운 수단을 써서 남의 환심을 산다는 뜻이다.
곁을 주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속마음을 열거나 친근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깐깐오월'을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든 시기라는 뜻으로 사용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음력 5월은 해가 길어 하루가 더디 가는 듯 지루하다'는 뜻으로 써야 한다.
② O — '사개가 맞다'는 말이나 사리의 앞뒤가 빈틈없이 들어맞는다는 뜻이므로, 판결의 논리가 정연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한다는 문맥에 어울린다.
③ O — '엉너리를 치다'는 능청스러운 수단으로 남의 환심을 산다는 뜻이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며 슬그머니 다가와 앉았다는 문맥에 사용할 수 있다.
④ O — '곁을 주다'는 상대가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속마음을 열거나 친근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오래 만났지만 좀처럼 친밀해지지 않았다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의 '깐깐'을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성격이 까다롭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깐깐오월'은 생계의 어려움이 아니라 음력 5월의 긴 해와 그로 인한 지루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용 표현은 낱말을 따로 풀지 않고 표현 전체의 굳어진 뜻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뜻을 문장에 그대로 대입하여 상황과 맞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깐깐오월은 '긴 해라 지루한 오월', 사개가 맞다는 '앞뒤가 딱 맞음', 엉너리를 치다는 '능청스럽게 환심을 삼', 곁을 주다는 '마음을 열고 가까이함'이다.

NoteBase

문 7. <한글 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맞게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숫자(數字) ㉡ 갯수(個數) ㉢ 횟수(回數)
㉣ 촛점(焦點) ㉤ 댓가(代價) ㉥ 곳간(庫間)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두 음절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적는 여섯 가지 예외와 일반 한자어의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두 음절 한자어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따라서 ㉠ 숫자, ㉢ 횟수, ㉥ 곳간은 맞고, ㉡ 갯수·㉣ 촛점·㉤ 댓가는 각각 개수·초점·대가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 '갯수'가 잘못되었다. 個數는 예외 한자어가 아니므로 '개수'로 적는다. 또한 맞는 표기인 ㉥ '곳간'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묶음은 '㉠, ㉢, ㉥'이다.
② X — ㉡ '갯수'와 ㉣ '촛점'이 잘못되었다. 각각 '개수'와 '초점'으로 고쳐야 하며, 올바른 묶음은 '㉠, ㉢, ㉥'이다.
③ X — ㉤ '댓가'가 잘못되었다. 代價는 예외 한자어가 아니므로 '대가'로 적어야 하고, 맞는 표기인 ㉥ '곳간'을 포함한 '㉠, ㉢, ㉥'이 올바른 묶음이다.
④ O — ㉠ '숫자', ㉢ '횟수', ㉥ '곳간'은 모두 사이시옷을 적는 두 음절 한자어의 예외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실제 발음이 된소리로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갯수', '촛점', '댓가'처럼 적는 것이 함정이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발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규정에 제시된 여섯 예외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음절 한자어의 사이시옷 문제에서는 먼저 여섯 예외인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여섯 예외가 아니면 한자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자어 사이시옷의 여섯 예외는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이다. 개수·초점·대가에는 사이시옷이 없다.

NoteBase

문 8.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④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조사·의존 명사·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말은 붙여 쓴다. 이 문항에서는 '관계없이'와 '공부깨나', '안되어도'의 붙여쓰기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난주'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의 '-ㄹ지'는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문장 전체의 띄어쓰기가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관계 없이'이다. '관계없이'는 '관계없다'의 활용형이므로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부 깨나'이다.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공부깨나 했나 보다'로 고쳐 쓴다. '아는 체하다'와 '했나 보다'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④ X — 틀린 표현은 '안 되어도'이다. 여기서 '안되다'는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로 고쳐 쓴다. '중'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오답 포인트

'없이', '깨나', '안 되어도'를 겉모양만 보고 모두 띄어 쓰기 쉬운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④의 '안되다'는 단순 부정의 '안 되다'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에 가까운 뜻이므로 붙여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 뒤, '안되다'처럼 문맥에 따라 한 단어가 되는 표현은 뜻을 확인한다.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이면 '안되다'로 붙이고, 단순히 '되지 않다'이면 '안 되다'로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관계없이·공부깨나·안되어도는 붙이고, 아는 체하다·했나 보다·합격할 듯하다는 띄어 쓴다.

NoteBase

문 9. '해양경찰청에서 현장 구조전문가 양성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의 진행으로 각 전문가나 대표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공동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회의 방식은?

① 토론
② 패널 토의
③ 심포지엄
④ 원탁 토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회자의 진행 아래 여러 전문가나 대표자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결론을 도출하는 회의 방식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널 토의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선정된 전문가나 대표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토론은 대립하는 입장에서 논거를 주고받는 방식이고,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가 한 주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차례로 발표하는 방식이며, 원탁 토의는 참석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토론은 일반적으로 찬반 등 대립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거를 제시하며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이다. 이 문항처럼 사회자가 전문가나 대표자의 의견 교환을 이끌어 공동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은 패널 토의이다.
② O — 패널 토의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나 대표자가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논의하여 해결 방향이나 공동 결론을 모색하는 방식이므로 제시된 상황에 가장 알맞다.
③ X —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가 한 주제의 세부 영역이나 서로 다른 관점을 맡아 차례로 발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 사이의 상호 토의를 통해 공동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중심을 두는 방식은 패널 토의이다.
④ X — 원탁 토의는 모든 참석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소집단 토의 방식이다. 사회자가 선정된 전문가나 대표자의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패널 토의이다.

오답 포인트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다'는 표현만 보고 심포지엄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사회자의 진행', '전문가나 대표자들', '공동의 결론'이다. 이는 개별 발표가 중심인 심포지엄보다 상호 논의가 중심인 패널 토의에 해당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문가들이 차례로 발표하면 심포지엄, 사회자가 전문가들의 상호 논의를 이끌면 패널 토의, 찬반 양측이 논박하면 토론, 모든 참석자가 동등하게 자유 토의하면 원탁 토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패널 토의는 '사회자＋전문가·대표자＋상호 논의', 심포지엄은 '전문가별 순차 발표'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문장들을 하나의 단락으로 재구성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 순서는?

㉠ 또한, 이번 열차 운행은 한반도 전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시키는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경의선 화물 열차는 우선 남북 사이 물자 수송의 단가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이는 남쪽 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 지난 수십 년 북쪽 육로가 끊겨 섬과 같았던 우리나라가 다시 대륙 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조건을 갖춰 가는 셈이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첫머리에 쓰인 지시어와 접속 표현을 단서로 문장 사이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 — 경의선 화물 열차라는 중심 화제를 처음 제시하고, 물자 수송의 단가와 시간을 줄이는 직접 효과를 설명한다.
2. ㉢ — ‘이는’이 ㉡의 물자 수송 단가·시간 절감 효과를 받아, 그 효과가 개성공단 입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짐을 밝힌다.
3. ㉠ — ‘또한’으로 앞의 직접 효과에 더해 한반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및 중국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더 넓은 의미를 제시한다.
4. ㉣ — 이러한 대륙 철도 연결의 의미를 우리나라가 대륙 국가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종합한다.

왜 이 순서인가: ㉢의 ‘이는’은 ㉡의 효과를 받아야 하고, ㉠의 ‘또한’은 앞서 언급된 효과가 있어야 자연스러우며, ㉣은 그 전체 의미를 결론처럼 정리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은 부자연스럽다. ㉠의 '또한'은 앞에 더할 내용이 필요하므로 중심 화제를 처음 제시하는 ㉡보다 먼저 올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이다.
② X — '㉡-㉠-㉢'은 부자연스럽다. ㉢의 '이는'은 바로 앞의 ㉡에 제시된 수송 단가·시간 절감 효과를 받아야 하므로 ㉠이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이다.
③ O — ㉡이 화제를 제시하고, ㉢이 '이는'으로 ㉡의 효과를 구체화한다. 이어 ㉠이 '또한'으로 더 큰 의미를 보태고, ㉣이 대륙 국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④ X — '㉣-㉡'과 마지막의 ㉠이 부자연스럽다. ㉣은 앞에서 설명한 대륙 철도 연결의 의미를 종합하는 문장이므로 첫 문장이 될 수 없고, ㉠ 뒤에는 그 의미를 정리하는 ㉣이 와야 한다. 올바르게는 ㉡-㉢-㉠-㉣이다.

오답 포인트

㉡과 ㉠이 모두 경의선 열차의 의미를 말하므로 서로 바꾸기 쉽다. 그러나 ㉡은 화제를 처음 제시하는 문장이고, ㉠은 '또한'으로 추가 의미를 보태는 문장이다. 특히 ㉢의 '이는'이 ㉡의 수송 단가·시간 절감 효과를 직접 받는다는 점이 배열을 결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 두 문장을 묶고, 접속 표현이 요구하는 앞 문장을 확인한 뒤, 화제 제시 문장을 맨 앞에 놓고 종합·결론 문장을 맨 뒤에 놓는다.

암기 포인트

'이는'은 바로 앞 내용을 받고, '또한'은 앞 내용에 의미를 더한다. 이 문항은 '㉡의 효과 → ㉢의 구체화 → ㉠의 추가 의미 → ㉣의 종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1. 밑줄 친 말 중 '바둑'과 관련된 어휘로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① 새로운 증거물로 인해 이번 재판의 국면(局面)이 새롭게 전환되었다.

② 역사적으로 볼 때 국기(國紀)가 해이해지면 국가에 위기가 닥치곤 하였다.

③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사장은 대마(大馬)는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④ 그의 갑작스러운 기자 회견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포석(布石)으로 풀이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상에서 비유적으로 쓰이는 말의 본래 의미가 바둑에서 유래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면은 바둑판의 형세, 대마는 바둑판에서 크게 형성된 돌의 무리, 포석은 대국 초반의 돌 배치를 가리키는 바둑 용어이다. 국기는 나라의 기강과 질서를 뜻하므로 바둑과 관련된 어휘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면(局面)은 본래 바둑판에서 전개되는 형세나 판의 상황을 뜻하며, 여기서는 재판의 상황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바둑과 관련된 어휘이다.

② O
국기(國紀)는 나라의 기강이나 국가의 질서를 뜻한다. 바둑에서 유래한 말이 아니므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한다.

③ X
대마(大馬)는 바둑에서 여러 돌이 이어져 크게 형성된 돌의 무리를 뜻한다. '대마는 죽지 않는다'라는 바둑 표현에서 사업 규모가 큰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비유적 의미가 생겼으므로 바둑과 관련된 어휘이다.

④ X
포석(布石)은 바둑의 초반에 앞으로의 전개를 고려하여 돌을 배치하는 일을 뜻한다. 여기서는 위기 돌파를 위해 미리 마련한 조치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바둑과 관련된 어휘이다.

오답 포인트

한자어라는 공통된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②의 국기도 바둑 용어처럼 느낄 수 있다. 각 단어가 문장에서 비유적으로 쓰였더라도 본래 뜻이 바둑판의 형세·돌의 무리·초반 배치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휘의 문맥상 의미와 본래 의미를 분리한 뒤, 본래 의미가 바둑의 형세·돌·수읽기·돌 배치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면·대마·포석은 바둑, 국기는 나라의 기강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① 의도적인 행갈이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남북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다루고 있다.
③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숨 막히던 상황이다.
④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형식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 정서 표현 방식을 작품의 구체적 시어를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김종삼의 <민간인>은 분단 직후 경계선을 넘는 긴박한 상황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영아의 비극을 짧고 절제된 언어로 제시한 시이다. 화자가 감정을 직접 쏟아 내기보다 사건과 장면을 압축하여 제시하므로, 비극적 정서는 강하지만 감정 표현 자체가 풍부한 작품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처럼 짧은 구절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를 독립된 행으로 제시하여 장면의 긴장감과 단절감을 높인다.
② O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과 그 바다에서 영아가 희생된 사건은 남북 분단이 빚은 민족적 비극을 드러낸다.
③ O — ‘심야’, ‘경계선’,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는 시어는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은밀하고 위태롭게 이동해야 했던 숨 막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었다’이다. 이 시는 슬픔이나 분노를 직접 토로하지 않고 영아의 죽음과 알 수 없는 수심을 담담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감정을 절제한 채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작품에서 느껴지는 비극적 정서가 강하다는 사실과 화자의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판단을 혼동하기 쉽다. 이 시는 독자에게 큰 슬픔을 느끼게 하지만, 화자는 감정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장면과 사건만 절제하여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의 정서가 강한지와 감정이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표현되었는지를 구분한다. 감탄, 반복, 감정어의 직접 진술보다 사건·장면·이미지가 중심이면 감정의 직접 표출보다는 절제된 객관적 제시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민간인>은 분단의 비극을 강하게 환기하지만, 표현 방식은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흥보가 하릴없어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제 의관을 한참 차려 모자 터진 헌 갓에다, 철재를 술로 감아 노갓끈 달아쓰고, 편자는 좀이 먹고, 앞춤에 구멍이 중중, 관자 뙨 헌 망건을 물렛줄로 얽어 쓰고, 깃만 남은 베 중치막을 열 두 도막 이른 술띠로 시장찮게 눌러 매고, 헐고 헌 고의적삼에 살점이 울긋불긋, 목만 남은 길버선에 짚대님이 별자로다. 구멍 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 똑 얻어 올 걸로 큼직한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 이 모양으로 관뼈 위에 짊어지고 벌벌 떨며 건너갈 제 저 혼자 돌탄하여
"아무리 생각하나 되리란 말 아니난다. 모진 목숨 아니 죽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 신재효, <박타령>

① 일상어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② '오쟁이'에는 인물의 기대와 희망이 투사되어 있다.

③ '중치막'에는 과거의 높았던 지체와 벼슬이 나타나 있다.

④ '돌탄'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인물의 심리가 엿보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복장과 행동을 묘사한 표현이 흥보의 가난한 처지와 심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외양과 소지품은 그 인물의 현재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이 글은 낡고 해진 의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흥보의 궁핍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독백을 통해 절망적인 심정을 직접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모자 터진 헌 갓', '구멍 뚫린 나막신'과 같은 일상적인 어휘를 쓰고, 흥보가 형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이어서 제시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② O — 흥보가 '똑 얻어 올 것'을 담으려고 '큼직한 오쟁이'를 짊어진 모습에는 형에게서 많은 것을 얻어 오리라는 기대와 희망이 투사되어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과거의 높았던 지체와 벼슬'이다. '깃만 남은 베 중치막'은 심하게 낡은 옷으로, 과거의 높은 신분이나 벼슬이 아니라 흥보의 현재 가난하고 초라한 처지를 보여 준다.
④ O — '돌탄'은 혼자 탄식하며 중얼거리는 것을 뜻한다. 이어지는 '이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말에서 자신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하는 심리가 드러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치막’이라는 옷 이름만 보고 신분이나 벼슬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판단의 핵심은 옷의 종류가 아니라 ‘깃만 남은’이라는 수식어이며, 이는 옷이 다 해질 만큼 궁핍한 현재의 처지를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소지품이나 복장이 제시되면 대상의 명칭만 보지 않고 그 앞뒤의 수식어와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심리는 행동 뒤에 이어지는 독백과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큼직한 오쟁이는 기대, 깃만 남은 중치막은 궁핍, 돌탄은 신세 한탄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부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지 못한 것은?

① 약을 먹은 효과가 금새(→ 금세) 나타나기 시작했다.

② 그는 아홉 살 때에서야 한글을 깨이게(→ 깨우치게) 되었다.

③ 어제 만난 사람은 나이가 지그시(→ 지긋이) 들어 보인다.

④ 소가 파리를 쫓으려고 꼬리를 마구 젖고(→ 젓고) 있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표준어와 유의어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괄호 안의 말이 밑줄 친 말을 올바르게 고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금세'는 '지금 바로'의 뜻이고, '깨치다'는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며, '깨우치다'는 다른 사람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다. '지긋이'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한 모양을 나타내고, '젓다'는 액체나 물체를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금새'는 잘못된 표기이고 '금세'가 표준어이다. 따라서 '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나기 시작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② X — 잘못 고친 표현은 '깨우치게'이다. '깨우치다'는 남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뜻이므로, 본인이 한글을 익혀 알게 되었다는 문맥에서는 '깨치게'가 맞다. 올바르게는 '그는 아홉 살 때에서야 한글을 깨치게 되었다'이다.
③ O — 나이가 비교적 많아 보인다는 뜻에는 '지긋이'가 맞다. '지그시'는 눈을 살며시 감거나 힘을 은근히 주는 모양을 나타내므로,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④ O — 꼬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동작에는 '젓다'를 쓴다. '젖다'는 물기가 배어 축축해진다는 뜻이므로, '꼬리를 마구 젓고 있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의 '깨우치다'와 '깨치다'를 비슷한 말로 보아 넘기기 쉽다. 이 문장에서는 그가 스스로 한글을 알게 된 것이므로 '깨치다'가 맞고, '깨우치다'로 바꾸면 행위의 방향이 달라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된 말의 표기만 보지 않고 문장의 주체와 동작의 방향을 함께 확인한다. 스스로 알게 되면 '깨치다', 남에게 알게 하면 '깨우치다'로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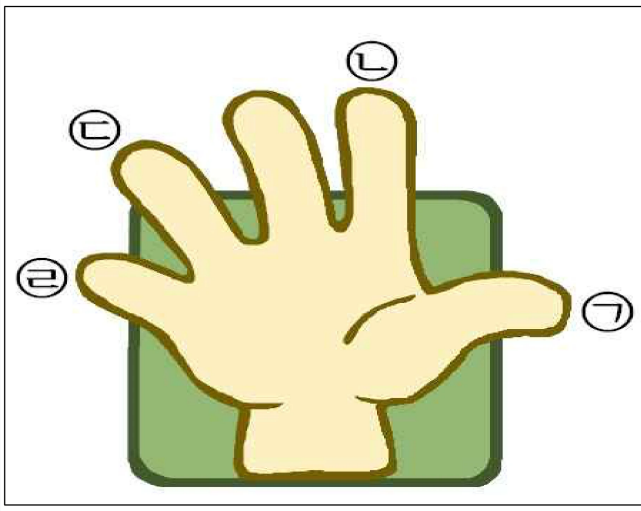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글을 깨치다, 남을 깨우치다. 금세는 시간, 지긋이는 나이, 젓다는 움직임이다.

NoteBase

문 15. ㉠ ~ ㉣을 가리키는 말과 한자어를 가장 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 엄지손가락 - 무지(拇指)
㉡: 집게손가락 - 식지(食指)
㉢: 약손가락 - 무명지(無名指)
㉣: 새끼손가락 - 섬지(纖指)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손 그림에서 ㉠은 엄지손가락, ㉡은 집게손가락, ㉢은 약손가락, ㉣은 새끼손가락을 가리킨다. 각 손가락의 고유어 명칭과 대응하는 한자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엄지손가락이며, 엄지손가락의 한자어는 무지(拇指)이다.

② O
㉡은 집게손가락이며, 집게손가락의 한자어는 식지(食指)이다.

③ O
㉢은 약손가락이며, 약손가락의 한자어는 무명지(無名指)이다.

④ X
㉣이 새끼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섬지(纖指)'는 가늘고 고운 손가락을 뜻하므로 새끼손가락의 대응 한자어가 아니다. '새끼손가락-섬지(纖指)'는 '새끼손가락-소지(小指)'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섬(纖)'에 '가늘다'라는 뜻이 있어 새끼손가락과 연결하기 쉽지만, 섬지는 손가락의 굵기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새끼손가락 자체를 이르는 한자어는 소지(小指)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그림에서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무지-엄지손가락, 식지-집게손가락, 무명지-약손가락, 소지-새끼손가락의 대응 관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엄지=무지, 집게=식지, 약지=무명지, 새끼=소지이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어떤 문인에 대한 평전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문인으로 알맞은 것은?

(㉠)은(는) 시집의 초고를 정리한 다음, 가장 먼저 연희 전문 2년 후배인 정병욱에게 보여 주었다. 작품마다 쓴 날짜를 일일이 밝혀 두었는데, 그 무렵 (㉠)의 생활상을 알고 있던 정병욱은 뭉클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꾸준히 시를 써 온 것이 놀라웠고, 새삼 우러르는 마음도 들었다. <자화상>부터 시작해 <소년>과 <눈 오는 지도>로, 그리고 <또 다른 고향>과 <길>, 그리고 마지막 <별 헤는 밤>까지, 시집 전체가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교향악 같았다. 읽는 이의 감상 흐름까지 고려해 시집의 목차를 정했는데, 마지막에 놓인 <별 헤는 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교향시였다.

① 박목월
② 정지용
③ 조지훈
④ 윤동주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작품명과 주변 인물에 관한 단서를 바탕으로 해당 문인을 찾는 문제이다. <자화상>, <소년>, <눈 오는 지도>, <또 다른 고향>, <길>, <별 헤는 밤>은 모두 윤동주의 작품이며, 정병욱은 윤동주의 시 원고를 보존한 인물이다.

핵심 정리

박목월: 청록파 시인으로, 대표작에 <나그네>가 있다.
정지용: 감각적 이미지와 절제된 언어가 두드러지는 시인으로, 대표작에 <향수>가 있다.
조지훈: 청록파 시인으로, 대표작에 <승무>가 있다.
윤동주: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기 성찰과 양심, 부끄러움의 정서를 노래했으며, <별 헤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을 썼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박목월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한 글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제시된 작품들을 박목월과 연결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윤동주와 연결된다.
② X — 정지용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한 글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별 헤는 밤>·<자화상> 등을 정지용과 연결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윤동주의 작품이다.
③ X — 조지훈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한 글이 아니다. 틀린 연결은 정병욱에게 시집 초고를 보여 준 문인을 조지훈으로 본 것이며, 올바르게는 윤동주이다.
④ O — <자화상>, <소년>, <눈 오는 지도>, <또 다른 고향>, <길>, <별 헤는 밤>은 윤동주의 작품이다. 정병욱과의 관계도 윤동주를 가리키므로 ㉠에 들어갈 문인은 윤동주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선지가 모두 한국 현대시의 대표 시인이어서 시대적 인상만으로 고르면 혼동하기 쉽다. 결정적 단서는 여러 작품명이 한꺼번에 윤동주의 작품으로 제시되고, 정병욱이 시집 초고를 읽었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인 찾기 문제에서는 평전의 분위기보다 작품명과 교우 관계처럼 인물을 유일하게 특정하는 단서를 먼저 묶는다. 이 문항에서는 <별 헤는 밤>과 <자화상>만으로도 윤동주를 특정할 수 있고, 정병욱이라는 단서로 다시 확인된다.

암기 포인트

윤동주 = <자화상>·<또 다른 고향>·<별 헤는 밤> + 원고를 보존한 정병욱이다.

NoteBase

문 17.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된서리가 (㉠) 바람에 농작물이 다 얼어 버렸다.
·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돼지를 (㉠) 생계를 유지하셨다.
· 무더운 여름에는 창에 발을 (㉠), 문을 열어 두곤 하였다.

① 놓다
② 치다
③ 내리다
④ 기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여러 뜻으로 쓰이는 다의어의 용법을 묻는 문제이다. 세 문장의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되돌렸을 때 모두 '치다'가 된다.

핵심 개념

다의어는 서로 관련된 여러 뜻을 지닌 하나의 단어이다. '치다'는 이 문장에서 각각 '서리가 내리다', '가축을 기르다', '발이나 장막을 드리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된서리가 친', '돼지를 쳐', '발을 치고'의 기본형은 모두 '치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놓다'는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없다. 특히 '된서리가 놓은'과 '돼지를 놓아 생계를 유지했다'는 해당 문맥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된서리가 친', '돼지를 쳐', '발을 치고'이며 기본형은 '치다'이다.
② O — '된서리가 치다'는 서리가 내리다는 뜻이고, '돼지를 치다'는 돼지를 기르다는 뜻이며, '발을 치다'는 발을 드리우다는 뜻이다. 활용형은 각각 '친', '쳐', '치고'가 된다.
③ X — '내리다'는 '서리가 내리다'에는 어울리지만 '돼지를 내려 생계를 유지했다'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공통 기본형이 아니다.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기본형은 '치다'이다.
④ X — '기르다'는 '돼지를 기르다'에는 어울리지만 '된서리가 기른'이나 '발을 기르고'는 문맥에 맞지 않는다. 세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기본형은 '치다'이다.

오답 포인트

첫째 문장만 보면 '내리다', 둘째 문장만 보면 '기르다'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한 문장에만 자연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세 문장 모두에 들어가는 같은 기본형을 요구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에 선지를 활용한 형태로 넣어 본 뒤, 모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친ㅡ쳐ㅡ치고'의 활용형을 기본형으로 환원하면 모두 '치다'가 된다.

암기 포인트

서리가 치다, 가축을 치다, 발을 치다의 공통 기본형은 '치다'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 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 싹들이 사람의 몸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 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죽음이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순간도 이렇게는 있다

-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③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

④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시의 표현 방법과 화자의 인식 변화가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화자는 밟혀 죽은 잔디를 처음에는 안타깝게 여기지만, 나중에는 잔디가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사람들 속에서 다시 꽃피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감각적 이미지와 대립적 시어가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푸른 길', '청량한 말소리', '싱싱한 풀꽃 냄새', '푸른 풀잎처럼 반짝이는' 등 시각·청각·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잔디의 죽음이 생명과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를 형상화한다.
② O — 화자는 처음에 '잔디가 밟혀 죽을 텐데'라고 걱정하지만, 뒤에는 잔디가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 주고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깨닫는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걱정에서 긍정적 깨달음으로 변화한다.
③ X —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신념을 강조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이 시의 중심 표현 방식은 처음부터 확고한 신념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형 표현인 '저렇게 청량하랴'를 거쳐 '그제서야 … 안다'에 이르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올바르게는 '화자의 깨달음과 인식 변화를 통해 잔디의 희생과 생명 순환의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 '죽은 잔디'와 '살아있는 것', '죽음'과 '푸른 풀잎'처럼 대립하는 의미의 시어를 결합하여 죽음이 새로운 생명과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다.

오답 포인트

시의 후반에 '안다', '알겠다'와 같은 종결 표현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정적 어조에 의한 신념의 강조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핵심은 처음부터 유지된 신념이 아니라 걱정에서 깨달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법 선지는 특정 종결어 하나만 보지 않고 작품 전체에서 실제로 반복되거나 주제를 형성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특히 화자의 태도가 처음과 끝에서 달라지면 '신념의 강조'보다 '인식의 변화'가 중심인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걱정에서 깨달음으로의 전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설적 확장이 이 시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9. 방송 언어에 대한 지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핀란드 투르쿠에 있는 지방 법원에서 지난 3월 투르쿠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 용의자들의 첫 소환 심문이 열렸습니다. → '심문'은 수사 기관이나 변호인이 묻는 것이라 '신문'이 맞다.

② 이번 공연은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펼쳐졌다는 점에서 DMZ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엠제트'와 '디엠지',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

③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IT 예산 낭비와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전철을 밟다'는 보통 좋은 사례일 때 쓰므로 '궤적을 보여 줍니다' 정도로 수정한다.

④ 기계 내부가 심하게 녹슨 식기 세척기가 군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내부에서 쥐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 동물에는 '시체'가 더 적절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어휘와 외국 문자 이름의 허용 발음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심문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이고, 신문은 법원이나 수사 기관 등이 증인·피고인·피의자 등에게 사실을 묻는 일이다. 전철을 밟다는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사체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가리키지만, 시체는 주로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 영어 알파벳 Z의 이름은 '제트'와 '지'로 발음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원에서 용의자들을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를 가리키므로 문맥상 '심문'이 적절하다. '심문'을 '신문'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원문의 '첫 소환 심문'을 그대로 쓸 수 있다.

② O
DMZ의 Z는 영국식 이름에 따른 '제트'와 미국식 이름에 따른 '지'로 모두 발음할 수 있으므로, '디엠제트'와 '디엠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절하다.

③ X
'전철을 밟다'는 앞사람이 실패한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는 부정적 뜻이므로, 예산 낭비와 프로젝트 실패의 문맥에 알맞다. '좋은 사례일 때 쓴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할 때 쓴다고 해야 한다.

④ X
'사체'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몸을 모두 가리킬 수 있으므로 '쥐의 사체'가 적절하다. '동물에는 시체가 더 적절하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동물에는 '사체'를 쓸 수 있고 '시체'는 주로 죽은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심문'과 '신문'의 한자어 의미를 혼동하게 하고, ③은 '전철을 밟다'의 부정적 의미를 반대로 제시하며, ④는 '사체'와 '시체'의 적용 대상을 뒤바꾼다. 각 지적의 결론만 보지 않고 제시된 교정 이유가 실제 뜻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방송 언어 교정 문제에서는 밑줄 친 표현만 보지 않고 뒤에 제시된 교정 이유까지 하나의 주장으로 판단한다. 사전적 의미와 문맥이 일치하고, 제시된 대체 표현이나 발음이 실제 허용 범위에 맞는지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법원이 진술을 듣는 절차는 심문,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전철을 밟다, 동물의 죽은 몸은 사체, Z는 제트와 지가 모두 가능하다.

NoteBase

문 20. <조건>을 반영하여 <기사문>의 제목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기사문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을 작성할 것.
· 도치법을 사용할 것.
<기사문>
제8차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위원회에서 '김장,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최종 확정했다. 채소 절임 음식은 다른 문화권에도 많지만 김장처럼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전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집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저장해 두는 풍속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동체적 정체성의 공유라는 상징적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실제로 몸에도 좋다. 일본의 기무치에 비해 유산균 수가 무려 167배 많으며, 최근에는 발효 김치를 통한 나트륨 섭취가 항고혈압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 한겨레신문(2014.1.7.)

① 맛의 최고봉, 김치! 드디어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
② 인류 무형 유산이 되다! 함께 담그고 나눠 먹는, 몸에 좋은 김치
③ 기무치도 제치고, 고혈압도 물리친다! 인류 무형 유산, 김치
④ 겨울이 오기 전에 담그는 김치, 겨울이 가기 전에 나누는 김치, 인류의 무형 유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사문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아우르면서, 문장 성분의 일반적인 순서를 바꾸어 강조하는 도치법을 사용한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사 제목의 포괄성: 제목은 김장의 인류 무형 유산 등재, 함께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 김치의 건강상 이점을 두루 반영해야 한다.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뒤바꾸어 특정 내용을 앞세우는 표현법이다. ②는 보통 뒤에 놓일 서술부인 '인류 무형 유산이 되다'를 먼저 제시하여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맛의 최고봉'은 기사문에 제시되지 않은 주관적 평가이며, 함께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와 건강상 이점도 충분히 아우르지 못한다. 틀린 표현인 '맛의 최고봉'은 '함께 담그고 나누는, 몸에 좋은' 등 기사문의 핵심 내용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O
'인류 무형 유산이 되다'를 앞세워 도치법을 사용했으며, '함께 담그고 나눠 먹는'은 김장의 공동체 문화를, '몸에 좋은'은 유산균과 항고혈압 효과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등재 사실까지 포함하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③ X
'기무치도 제치고'는 기사문이 비교한 유산균 수의 차이를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과장했고, '고혈압도 물리친다'도 항고혈압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단정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가 빠졌다. 올바르게는 '기무치보다 유산균 수가 많고 항고혈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 문화'라고 표현해야 한다.

④ X
'겨울이 가기 전에 나누는 김치'는 기사문에 없는 시기를 덧붙인 표현이며, 김치의 건강상 이점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서술어를 앞으로 옮긴 뚜렷한 도치 표현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인류 무형 유산이 되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함께 담그고 나누는, 몸에 좋은 김치'처럼 기사문의 내용과 도치 조건을 함께 살려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사문의 '유산균 수 167배'와 '항고혈압 효과'를 눈에 띄게 담았지만, 이를 '제치고', '물리친다'로 과장하고 김장의 공동체성을 누락했다. 제목의 흥미로움보다 기사 전체 내용의 정확한 포괄과 도치법 사용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기사문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추린 뒤 각 제목이 이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기사에 없는 정보나 과장이 없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서술부 등을 앞세운 도치가 실제로 쓰였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체 내용 포괄, 사실의 정확성, 표현 조건 충족의 세 기준으로 기사 제목을 판단한다.

NoteBase